

중국인인가? 유학생인가?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남 순 현[†]

경북대학교 복지행정학과 /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유학생의 한국 유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9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학강사, 중국유학생연합회, 국제어학원, 재한유학생과 한국 대학생의 도움을 받아 중국유학생 404명을 유목적 편의표집하였다. AMOS 통계프로그램 22.0을 활용하여 통제변인을 통제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은 문화적응전략, 즉 고국문화유지와 한국문화수용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전략 중 한국문화수용만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중국유학생의 한국문화수용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한국문화수용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또한,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때, 한국문화수용전략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최근 대학 내 다문화상담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주요어 : 중국유학생, 민족정체성, 문화적응유형, 문화적응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다문화상담

[†] 교신저자 : 남순현, 경북대학교 복지행정학과, 남양주시 진접읍 경북대로 425 복지행정학과
Tel: 031-570-9845, Email: shnam@kbu.ac.kr

서론

2019년 4월 기준 한국의 중국유학생은 7만 1,000여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16만 165명)의 44.4%(71,067명)를 차지(교육통계서비스, 2020)할 정도로, 많은 중국유학생이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체 중국유학생의 49.5%(35,152명)가 서울지역에 재학하고 있고, 그다음 지역으로는 부산 5,396명, 대전 3,461명, 전북 3,360명, 충남 3,290명, 그리고 광주 2,451명의 순으로 중국유학생은 한국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최근 COVID-19로 국내 교육시장에 중국유학생의 유입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책적으로 중국유학생의 한국 입국 자체를 제한하거나 혹은 유학생 스스로 휴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서도, 전체 유학생 수는 15만 3,69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6,470명) 감소하였고, 중국유학생수는 43.6%로 19년도에 비해 0.8%(4,037명) 감소하였다(교육부,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유학생은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치·사회·경제·문화교류에서 유능한 인재 확보(이재모, 2008)라는 긍정적인 효과에서, 향후 중국유학생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증대할 전망이다.

한·중 문화교류협정 이후 중국내 ‘한류열풍’은 양국 간 경제교류는 물론 문화교류를 확대시켰고, 교육열이 높은 중국유학생의 한국 교육시장 유입을 증폭시켰다(남순현, 2010). 대부분의 중국유학생은 지형적 거리 외에도 생활비, 문화적 동질성, 입학의 용이함 등의 이유로 한국유학을 선택한다. 한류열풍 또한, 중국유학생이 한국유학을 선택하는 이유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15년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수립하였고, 전국의 대학은 중국유학생을 경쟁적으로 유치해왔다. 여기서 상담자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중국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이다. 학교장면에서 상담자는 중국유학생이 유학기간 동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적응에서 그들이 선택한 문화적응전략과 그로 인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유학생 생활 적응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유학생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 속에서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유학생이 갖고 있는 민족정체성은 문화적응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유학생 생활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초래할 것이며,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유학생은 한국 유학생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적응전략을 사용할 것이며, 그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유학생의 정체감에 관한 국내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간혹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정체감 연구에서도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유학생의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문화적응전략,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민족정체성과 문화적응전략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은 현재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정체성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써, 가장 지배적인 정체성이다(Smith, 1991). 민족정체성은 같은 민족 안에서 그리고 한 민족으로서 살아간다는 성원들 간의 공유된 인식과 성원들 자신의 민족에 대한 공유된 소속감을 의미한다(정호영, 2001, p. 68). 즉, 민족정체성은 집단과 민족에 대한 주관적인 소속감을 말한다(Phinney 1990). 민족정체성은 민족에 대한 의미들의 집합으로써, 그 의미들의 집합은 성원들 간의 호혜적 인식과 성원들의 민족에 대한 소속감의 합을 구성한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은 민족구성원 내에서 하나의 의미 총합이며, 민족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발전된다.

민족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우리보다 일찍이 다문화사회를 이뤘은 서구에서 다양하게 이뤄져 왔다(Phinney, Cantu, & Kurtz, 1997; Phinney & Chavira, 1992; Phinney & Devich-Navarro, 1997; Phinney & Onwughalu, 1996; Roberts et al., 1999). 본래 개인의 정체성이란 시간과 상황이 바뀌어도 자신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처럼, 민족정체성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개인 질문에서 확장되어 ‘나의 민족 혹은 다른 민족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수반한다(Marcia, 1966, 1980, 1983). 즉, 개인의 정체성이 개인적 측면에서 일관된 지각이라면, 민족정체성은 사회적 측면에서 자 민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다(Bernal & Knight, 1993; Phinney, 1990, 1992; Rumbaut, 1994).

민족정체성 연구는 1960년대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과 정체성형성이론

(identity formation theory)에 바탕을 두고 시작되었다. Phinney를 중심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민족정체성 연구는 그녀의 실증적 연구 노력의 산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Phinney와 Ong(2007)는 이주민들이 갖는 원문화에 대한 민족정체성이 주류문화의 민족정체성과 연관있다는 것을 밝혔고, Phinney, Horenezyk, Liebkind와 Vedder(2001)는 이중적 모델(dual focus)에 기초한 4가지 민족정체성 유형(통합, 동화, 분리, 주변)을 제안하였다. 이는 Berry(1990, 1992, 1997)의 4가지 문화적응유형과 유사하다. 하지만 민족정체성에 대한 Phinney의 초기연구가 이론적이고 실제적 근거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연구는 민족정체성을 이주민의 문화적응이라는 개념과 거의 동일시하였고, 민족정체성의 정도에 따라 이주민의 주류문화에 대한 문화적응 정도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최근까지 많은 연구자들(김선임, 2012; 조민경, 김렬, 2010; Adler, 1975; Dong, Gundlach, & Philips, 2006; Haritatos & Benet-Martínez, 2002)이 이주자의 민족정체성과 이주국가 문화적응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김재우(2005)는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한국인의 편견을 보고하였다. Walker, Wingate, Obasi와 Joiner(2008)가 집단정체성이 낮거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대학생집단이 우울증상이 높다고 보고한 것처럼, 유학생의 민족정체성과 문화적응전략 및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그 직접적인 관련성과 경로는 보고된 바 없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는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문화적응과정에서 고국문화유지전략을 선택한 결과인지 혹은 한국문화수용을 선

호한 결과인지 보고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내 이주민의 민족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었지만(김경은, 윤노아, 2012; 양계민, 2009; 양계민, 이우영, 2016), 문화적응전략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김경은과 윤노아(2012)가 민족정체성이 자 민족지향성과 정적 관계가 있는 반면에, 다문화지향성과는 부적 관계를 보인다고 지적한 것처럼,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은 고국문화 유지전략을 선호할 때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한국유학생들이라는 문화접변 속에서 중국유학생의 한국문화에 대한 수용은 유학생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한국유학 내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두 집단 간에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경향에 이차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개인집단들이 지속적인 직접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것으로써, 개인이 가진 이전 문화,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개인적 성향, 문화적응과정에서 개인행동 반응의 결과물 및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로 구성된다(Berry, 2003, 2005).

Berry(1997)는 개인이 모국의 문화정체감 및 특성을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는지의 여부와 새로운 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문화적응을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greg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4가지 유형 중 미국사회에서 이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적응방식은 원문화의 정체성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류사회의 문화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통합유형이다(Berry, 1990; Berry & Sam, 1996). 하지만 국내연구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송원영과 리난(2008)은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동화유형을 보이는 중국유학생이 불안과 우울이 가장 낮았고, 주변화 유형을 보일 때 불안과 우울함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유사하게 동일 문화에서 생활했던 중국 조선족 유학생과 중국 한족 유학생을 비교해본 결과에서도, 중국 조선족 유학생은 동화를 사용할 때, 높은 심리적 안녕감과 낮은 우울을 보고했다(허춘영, 김광일, 1997). 이는 서구의 주류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거나 가치를 두는 경우, 통합전략의 선택이 용이할 수 있는 반면, 한국사회처럼 주류문화가 동화를 강조하는 경우, 통합전략의 선택이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정진경, 양계민, 2004). 즉, 문화적응유형의 선택은 개인의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응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정진경, 양계민, 2004; Berry, 1997, 2003).

문화적응태도는 개인적, 상황적, 환경적, 문화 배경적 그리고 시대에 따라 유동적이다. 유학생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유학생 자국의 문화가치와 규칙 및 규범 등이 새로운 국가의 문화와 접할 때, 개인과 집단이 겪게 되는 부정적 변화나 문화충돌 때문이다(Berry, 2005). 하지만, Poyrazli, Kavanaugh, Baker와 Al-Timini(2004)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개인이 문화에 적응하는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환경

이나 지원 정책, 대인관계 등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교육과 지식 및 경제수준은 이주자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개인특성이다(Berry, 1997; Oh, Koeske, & Sales, 2002; Park, 2007). 이주민은 이주 연령시점이 낮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새로운 문화에 더 잘 적응하였고(Beiser et al., 1988), 이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았다(Beiser et al., 1988). 아울러 자발적 이주동기를 지닌 이주민이 비자발적 이주동기를 지닌 이주민보다 훨씬 쉽게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1997; Kim, 1988).

다음으로,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다. 연구들은 동일문화권의 이주일수록 이주자들이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Berry(1997)는 아시아계 이주민보다 유럽 출신 이주민들이 북미사회에 이주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응에 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주민은 원문화와 주류문화 사이의 행동, 생활, 사고방식 및 언어적 유사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문화적응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Berry, 1997). 또한, 박소라(2008)는 또래집단, 가족구성원, 매스미디어와 같은 사회적 요인(socializing agents) 역시 이주민의 문화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실제 연구에서도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1.5세대와 2세대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유형을 살펴본 결과, 한국인 친구의 비중이 높을수록, 한국 미디어 이용을 많이 할수록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적응 유형 중 통합과 분리유형을 사용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경제수준, 이주기간, 및 유학동기 등을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일반적으로 유학은 자발적인 이중문화접촉의 형태를 띤다. 유학생의 새로운 문화로의 진입은 스트레스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유학생이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할 것이라는 초기 연구자들의 기대와 달리(Garza-Guerrero, 1974; Krupinski, Stoller, & Wallace, 1973), 유학생은 유학생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Church, 1982; Rogler, 1994). 극단적인 경우, 정신건강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Berry, Kim, Minde, & Mok, 1987).

유학생은 새로운 문화적응과정에서 유학초기 잠시 성취감, 행복감, 자존감 및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 하지만 점차 유학생의 이중문화 접촉은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불안이나 우울, 소외감, 신체증세 그리고 정체성 혼란 등 특정한 일련의 스트레스 행동들을 동반한다(한유경, 2009). 이문화 간 문화변용(acclimation)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Wei et al., 2007), 즉 문화적응스트레스(acclimative stress)는 유학생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Hovey와 King(1996)은 유학생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면, 불안이나 우울감이 높아지고, 심한 경우 자살충동을 일으킨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비만과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었고(두환, 판아샤, 자오쉬, 유정순, 장경자,

2008), 스트레스성 체중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의 신체건강을 저하시켰다(Zhang, 2005).

이미 선행연구들(Crockett et al., 2007; Roche & Kuperminc, 2012)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재미 라틴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rockett 등(2007)의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인해 초래된 불안과 우울이 학업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재미 라틴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Roche와 Kuperminc(2012)의 연구에서도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며, 중국적으로 낮은 학업수행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국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제시된 바 있기도 하다(권미경, 이순형, 2010; 주동범, 김향황, 2013).

반면에, 신혜정(2007)은 다문화가족 연구를 통해서 개인 정체성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봤고, 그 결과 정체성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적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정희(1987)도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은 유학생이 정신적·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한국의 유학생생활에 심리적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들(김정희, 1987; 신혜정, 2007)은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한국유학생생활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낮추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예측하게 해준다.

중국유학생이 고국을 떠나 낯선 곳에서 유학생생활을 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중국유학생은 언어, 학비, 한국사회 적응, 고국에 대한 향수, 개인으로서의 역할갈등과 나

아가 일상생활에서 일과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Mallinckrodt & Leong, 1992). 유학생은 유학을 시작하면서 대학 등록 및 수강 절차, 숙소문제 등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유학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도 한다(김성혁, 최혜정, 김수진, 2012; 유지현, 송소원, 류민영, 2008; 하정희, 2008). 김삼화(2005)는 중국유학생이 문화 차이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 문화이해의 어려움, 문화적응의 어려움 및 문화충돌을 해결하는 어려움, 타인관점 조망 수용의 어려움과 대인기술의 결함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한다.

민족정체성과 학교생활적응

학교적응은 추상적 사고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이규미, 2005). 유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대학 내에서 수업이나 시험 등의 구체적인 학업활동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학 내에서 대인관계나 과외활동 등에 적응하며, 이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 등을 갖는 것을 대학생활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Baker & Sirky, 1984). 다시 말해서, 유학생이 대학이라는 환경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학교적응이라고 개념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유학생이 겪는 한국문화적응의 어려움은 직접적으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유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는 학업과 진로 성

취, 심지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향후 한국과의 국제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중국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중국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국내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이순비, 2010), 어머니 나라의 방문경험이 있으며(신혜정, 2007),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박사론, 2009; 안은미, 2007),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유학생들과 정적인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Ong, Phinney와 Dennis(2006)와 Costigan, Koryzma, Hua와 Chance(2010)는 라틴계 미국인 대학생들과 중국계 캐나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이 민족·문화 정체성을 확립할 때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을 느끼며, 민족·문화 정체성의 확립은 낮은 학업 성취를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민족정체성이 한 민족을 의미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유학생에게 민족정체성은 곧 국가인 동시에 자신을 의미할 수 있다. 유학생을 마치고 국내 귀국한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오경자, 박규리와 오서진(2010)의 연구결과, 모국정체성이 높은 집단이 더 낮은 수준의 우울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보고하였다. 이승민(2012)의 연구에서도 귀국한 성인 해외거주자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결과,

모국정체성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울러, 남순현(2010)은 문화정체감이 높은 중국유학생일수록 타인과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잘하며, 학교생활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해나간다고 보고하였다.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민족정체성 외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문화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경험과 언어능력이 요구된다(이수범, 김동우, 2009). 주류사회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면 날수록, 중국유학생은 주류사회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주류 문화권으로의 문화적응이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Kim, 1995). 중국유학생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류사회로의 진입이 쉬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리통(2009)은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유학생은 중국유학생 사이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한국어가 서툰 중국유학생은 중국유학생 사이에서 모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의 언어문화가 민족정체성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중국유학생의 한국어 숙달정도는 수업이해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학생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 문화적응전략 및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유학생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성별, 경제수준, 한국어 숙달정도, 한국방문경험, 거주기간 및 유학동기 등이 가외변인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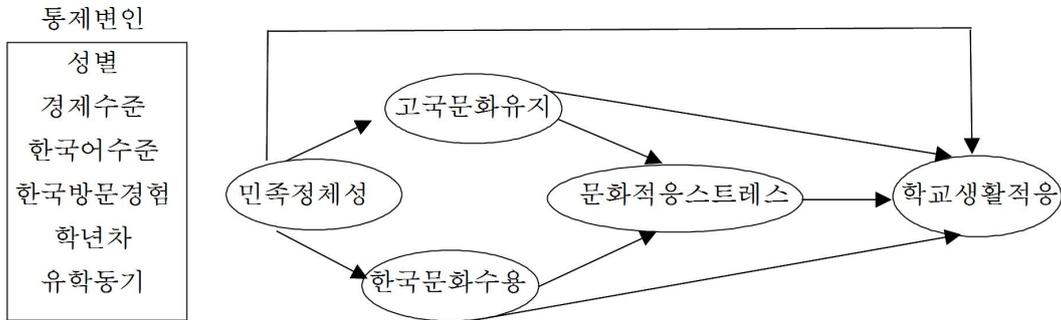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에서는 성별, 경제수준, 한국어수준, 유학 전 한국방문경험, 학년별 차이(거주기간) 및 유학동기를 통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고,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전략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문화적응전략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5.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이중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유학생 404명이다.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20.51세($SD=4.50$)이고, 남학생 167명(41.3%), 여학생 225명(55.7%)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 42명(10.4%), 2학년 131명(32.4%), 3학년 190명(47.0%), 4학년 37명(9.2%)이다. 중국유학생의 유학동기는 대부분 자의(219명, 54.2%)와 부모의 권유(112명, 27.7%)에 의한 것이었고, 대부분의 유학생이 부모에게 학비를 의존하고 있었다(363명, 89.9%). 국제어학원에서 수강하는 한국어수준은 초급(128명, 31.7%)과 중하(230명, 56.9%) 정도였는데,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을 방문한 경험은 거의 없었지만,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익히고 유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연구 절차

본 연구대상자는 대학강사, 중국유학생연합회, 국제어학원, 재한 중국유학생과 한국 대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유목적 편의표집과 눈덩이 표본표집되었다. 조사기간은 2019년 02월부터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징

변 인	명(%)
연령	평균 20.52세 (SD=4.50, Range 19세-25세)
성별	남자 167명 (41.3%)
	여자 225명 (55.7%)
학년	1학년 42명 (10.4%)
	2학년 131명 (32.4%)
	3학년 190명 (47.0%)
	4학년 37명 (9.2%)
유학동기	부모권유 112명 (27.7%)
	친구권유 2명 (0.5%)
	교사권유 9명 (2.2%)
	자의 219명 (54.2%)
	기타 48명 (11.9%)
학비지원	부모 363명 (89.9%)
	장학금 4명 (1.0%)
	아르바이트 17명 (4.2%)
	기타 7명 (1.7%)
한국어수준	초급 128명 (31.7%)
	중하 230명 (56.9%)
	중상 17명 (4.2%)
	상급 9명 (2.2%)
한국방문 경험	있다 14명 (3.5%)
	없다 378명 (93.6%)
유학 전 한국어 학습경험	있다 337명 (83.4%)
	없다 55명 (13.6%)
가족 월수입	150만원 미만 38명 (9.4%)
	150-250만원 233명 (57.7%)
	250-350만원 121명 (30.0%)
	350만원 이상 12명 (3.0%)

터 2019년 5월까지였다. 본 연구의 모든 중국어 척도는 한국에서 2년 거주한 한족 교수가 중국어로 번역하였고, 문항의 정확한 의미 전달과 표현, 뉘앙스 등을 비교하면서 연구자와

이중언어자 2명(한국 2년 거주 한족 교수, 한국 6개월 거주 조선족 교수)의 역번역(back translation)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와서도 춘절은 지키고 있다’는

문항은 역번역과정에서 來到韓國也堅持過春節。에서 即使來了韓國，也堅持過春節。으로 변경되었다. 연구자는 설문문의 모든 문항이 가능한 중국유학생의 고유한 문화정서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문항의 의미와 맥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상적인 언어들로 구성하였다.

측정 도구

민족정체성 척도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Gudykunst(1994)가 개발한 문화정체감(Strength of Cultural Identity Scale) Likert식 5점 척도 6문항을 사용하였다. Chaikovski(2006)는 본 척도를 활용하여 한국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정체감을 탐색하였다. 본 척도는 '나는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갖는다', '내게 중국인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중국문화를 좋게 생각한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Gudykunst(1994)는 연구에서 미국집단은 .76, 일본집단은 .73의 신뢰도를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α =.85였다.

문화적응전략 척도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김재우(2005)가 사용한 문화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채정민, 한성열, 허태균과 김동직(2002)이 개발한 문화적응척도에서 10문항, 허춘영과 김광일(1997)의 연구에서 5문항을 발췌하고 김재우(2005)가 나머지 5문항을 예비조사를 통해 제작한 것이다. 본 척도는 한국문화를 수용하려는 경향성 10문항(예,

한국에서 경험한 새로운 생활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과 중국문화를 유지하려는 10문항(예, 한국에 와서도 춘절은 지키고 있다)의 2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이다. 김재우(2005) 연구에서 한국문화수용에 대한 신뢰도는 .80이고, 중국문화유지에 대한 신뢰도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한국문화수용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α =.71, 중국문화고수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α =.71이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는 박은진(2007)이 개발한 문화적응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 5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써, '나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한국 사람들은 내 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박은진, 2007)에서 신뢰도는 .62였고,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α =.84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Weissman과 Paykel(1974)의 사회적응척도(Social Adjustment Scale, SAS)를 중국유학생에게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Weissman과 Paykel(1974)이 개발한 사회적응척도(Social Adjustment Scale, SAS)는 학업수행, 여가활동, 대인관계 등의 영역에서 적응을 측정하는 것으로써, 가사, 직장생활과 가족관계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SAS의 적응 영역을 중국유학생의 결석유무,

학업성적, 친구관계,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의 문항들로 재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결석한 날이 얼마나 됩니까?, 학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까? 등이다. SAS는 Likert식 5점 척도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이다. 하지만 Weissman과 Paykel(1974)의 연구에서는 우울집단과 통제집단의 여성 40명을 비교한 연구로 신뢰도와 타당도는 보고되지 않았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는 SPSS 20.0과 AMO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분포의 정상성을 살펴보고, 상관분석을 통해서 변인 간 관계를 탐색하였다. 둘째, 구조방정식(the structural equation)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하여 연구가설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가설모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외변인들, 즉 성별, 경제수준, 한국어수준, 한국방문경험, 학년차 및 유학동기를 통제된 후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가설모형 검증시, Kline(2005)과 홍세희(2000)가 추천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goodness of fit), 즉 절대 적합도지수 χ^2 값, RMSEA와 상대 적합도지수 CFI, TLI, NFI를 참고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시, 잠재변인에 해당하는 측정변인의 수가 5개 이상 많은 변인들에 대해서는 문항꾸러미 기법(Item parceling)을 사용하여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 변수를 조정하였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셋째, 본 연구에서는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 방법(bias-corrected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매개효

과를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간접경로의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 변인(Phantom variable)을 사용한 변형모형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Rindskopf, 1984). 본 연구의 결측치는 연구가설모형 검증 전 변인들에 대한 무응답 결측치를 통계적으로 제어한 후, 연구모형분석 시 Arbuckle(1996)이 제안한 AMOS 통계프로그램의 FIMI(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를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결 과

민족정체성, 문화적응유형,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의 하단과 같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분포의 정상성(DeCarlo, 1997)을 가정할 수 있었다.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의 상단과 같다. 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은 문화적응유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고국문화유지는 .12, 한국문화수용은 .15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민족정체성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 중 고국문화유지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한국문화수용은 문

표 2. 측정변인들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민족정체성	문화적응전략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고국문화유지	한국문화수용		
민족정체성	1.00				
문화적응전략					
고국문화유지	.12*	1.00			
한국문화수용	.15**	.09	1.00		
문화적응스트레스	-.01	.05	-.26**	1.00	
학교생활적응	.04	-.04	.22**	-.34**	1.00
평 균	21.42	32.69	26.92	15.28	27.23
표준편차	4.34	4.46	4.28	4.81	5.73
왜 도	1.57	0.03	0.13	1.54	1.32
첨 도	6.16	3.11	1.67	9.37	5.14

* $p < .05$, ** $p < .01$

화적응스트레스에 -.26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학교생활적응에 .22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중국유학생이 한국문화를 수용하면 할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고,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과 -.34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유학생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에서 타당성은 확인적 요인분석(Multi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분석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연구자의 지식에 근거하여 내재된 요인차원 및 가설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특정개념에 대한 측정 척도들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분석기법이다. 표 3에서처럼,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모형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은 $\chi^2=2989.96$, $p < 0.05$ 로 나타났고, 연구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H_0)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절대지수와 상대지수를 통한 적합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RESEA는 .07로 .08보다 작아 수용가능 범위에 있었고, CFI, TLI, NFI도 각각 .89, .92, .91로 나타나 1에 가깝기 때문에,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모형적합도

χ^2	CMIN/DF	RMSEA	CFI	TLI	NFI
2989.96 (df, 979), $p = .000$	3.05	.07	.89	.92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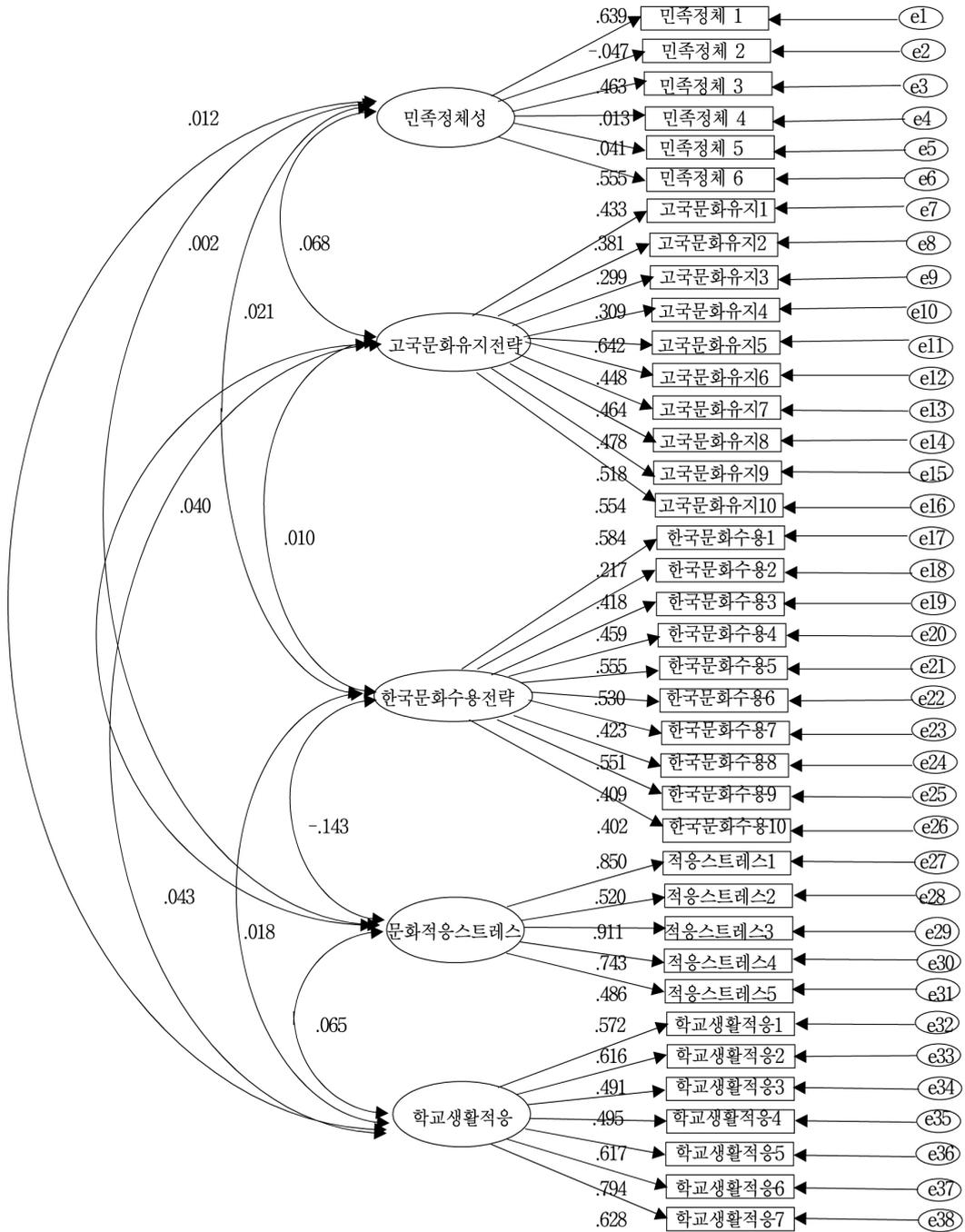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검증

연구모형 검증

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 1의 연구모형을 검증해본 결과는 그림 3과 표 4와 같다.

구조방정식의 세부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그림 2의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chi^2/df(CMIN/df)$ 은 통상적으로 3.0 이하이면 양호, 2.0 이하이면 매우 만족스러운 모형으로 평가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chi^2/df(CMIN/df)$ 값이 1.23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chi^2/df(CMIN/df)$ 외에도 CFI, TLI, NFI 상대 적합도 지수가 .90 이상이면 연구모형은 매우 좋은 모형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상대 적합도지수 CFI (Comparative Fit Index: ≥ 0.90 이 바람직)은 .98, TLI(Tucker-Lewis Index: ≥ 0.90 이 바람직)는 .97, NFI(Normed Fit Index: ≥ 0.90 이 바람직)는

.97이었다. 따라서 CFI, TLI와 NFI 모두 1에 가까운 수용범위를 보임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가설모형은 매우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절대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05 가 바람직)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03으로 수용범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모형은 χ^2 값이 연구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수용하고, 절대적합도지수 CFI, TLI, NFI가 1에 가까우며, RESEA가 .05 이하로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시켰기에, 매우 좋은 모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는 연구모형 경로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다. 첫째, 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은 문화적응전략, 즉 고국문화유지에 표준화 계수 $\beta=.12$ 와 한국문화수용에 $\beta=.15$ 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은 학교생활적응에는 $\beta=.13$ 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1을 지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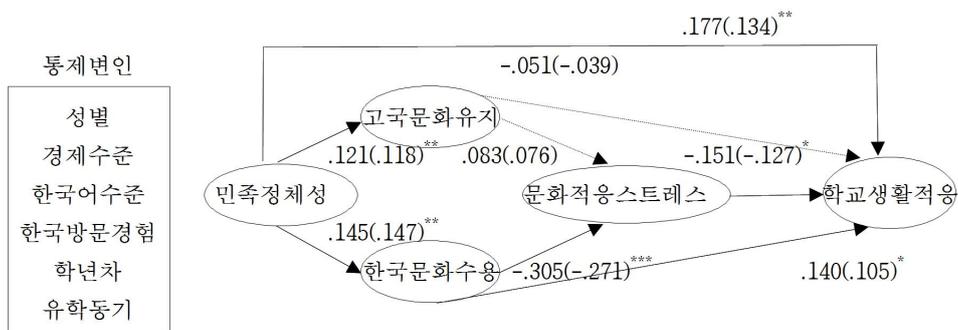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검증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모형적합도

χ^2	CMIN/DF	RMSEA	CFI	TLI	NFI
2.67 (df, 2), $p=.261$	1.23	.03	.98	.97	.97

표 5. 최대우도 모수 추정치

모 수	B	SE	β	t	p
민족정체성 → 고국문화유지	.121	.051	.118	2.381	.017
민족정체성 → 한국문화수용	.145	.049	.147	2.985	.003
고국문화유지 → 문화적응스트레스	.083	.052	.076	1.598	.110
한국문화수용 → 문화적응스트레스	-.305	.054	-.271	5.657	***
고국문화유지 → 학교생활적응	-.051	.063	-.039	-.082	.422
한국문화수용 → 학교생활적응	.140	.068	.105	2.057	.040
문화적응스트레스 → 학교생활적응	-.151	.060	-.127	2.514	.012
민족정체성 → 학교생활적응	.177	.065	.134	2.710	.007

둘째, 문화적응전략 중 고국문화유지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적인 영향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문화수용은 $\beta = -.27$ 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학교생활적응에는 $\beta = .11$ 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중국유학생이 한국문화를 수용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낮고, 유학생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설 2는 한국문화수용전략에서만 부분 지지되었다.

셋째, 중국유학생이 한국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beta = -.13$ 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은 중국유학생이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한다는 것이다. 가설 3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중국유학생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경험하는 문화충격에서 중국인으로서의 확고한 민족정체성을 지니고 흔들림 없이 한국문화를 잘 수용할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고,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매개효과 검증

변인 간 매개효과의 최종모형은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를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한국문화수용전략은 간접효과를 보였고, 한국문화수용과 문화적응스트레스도 간접효과를 보였다. 또한, 민족정체감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때, 한국문화수용전략의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분해결과가 간접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모두 전체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별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표 5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로계수 추정치와 효과분해결과 간접효과를 보이지 않은 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에 대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 결과는 매개변인이 여러 개인 경우 전체 매개효과를 검증하게 됨으로써, 개별경로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에 어려움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각 경로별

표 6. 매개효과 Bootstrap

구조경로	간접효과		Bias-corrected bootstrapping
	β	SE	
민족정체감→한국문화수용→문화적응스트레스	.031	.016	(-.066, -.002)
민족정체감→한국문화수용→문화적응스트레스→학교생활적응	-.005	.035	(-.014, -.001)
민족정체감→한국문화수용→학교생활적응	-.015	.012	(.018, .016)

매개효과검증은 매개변인에 대한 팬텀변인을 생성하여 각 개별 변인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Rindskopf, 1984). 본 연구에서 bootstrapping을 통해 각 경로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해본 결과, 표 6에서처럼 모든 경로의 신뢰구간 범위에서 영가설의 값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Shrout & Bolger, 2002),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한국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중국유학생의 한국문화수용전략은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고, 한국문화수용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이중 매개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때, 한국문화수용전략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따라서 가설 4와 5는 한국문화수용전략에서만 부분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유학생 404명을 대상으로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은 문화적응전략과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중국유학생의 중국인이라는 확고한 민족정체성이 고국 문화유지전략과 한국문화수용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중국유학생은 조선족유학생이 동화를 선택한 것과 달리 문화통합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는 중국유학생이 동화의 문화적응전략을 보일 때,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 송원영과 리난(2008)의 연구와 통합보다 동화를 강요하는 한국사회에서 한족과 달리 조선족이 동화의 문화적응전략을 택한 허춘영과 김광일(1997)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또한, 대학환경과 학업성취에 있어서도 동화형의 중국유학생이 통합형과 분리형보다 더 높은 적응 수준을 보인다는 육담성(2015)의 연구와도 다른 결과이다. 반면에, 한국인과 관계를 맺을 때 중국유학생의 통합과 동화형이 분리형과 주변화형보다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고설동(2012)의 연구를 일부 지지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개인의 정체감 형성이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정희(1987)와 신혜정(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민족정체성이 문화적응과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순비, 2010; Walker 등, 2008)를 지지한다.

둘째, 중국유학생의 고국문화유지전략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한국문화수용전략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유학생이 한국문화를 수용하면 할수록 중국문화와 한국문화 간에서 경험하는 문화충돌을 덜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문화충돌이 적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한다는 신혜정(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중국유학생이 한국문화를 수용하고, 한국인에 대해 상호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교류할 때,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덜 지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유학생의 한국문화수용전략은 유학기간 동안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으로 귀국한 후 민간외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일 수 있다.

셋째,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 한국문화수용전략 및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정체성이 우울, 불안, 그리고 학교생활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정희, 1987; 신혜정, 2007; Hovey & King, 1996; Zhang, 2005)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중국유학생의 한국문화수용전략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한국문화와 한국어 습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불안, 우울 및 심리적 안녕뿐만 아니라 자살에 이르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고(Berry et al., 1987), 비만, 스트레스성 체중저하 및 면역력 저하 등의 신체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두환 등, 2008; Zhang,

2005),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대학생의 학업수행과 성취는 학교생활적응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지표인데,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심리적 질병과 더불어 유학생들의 객관적 지표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도포기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소인이 있으므로 주목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한국문화수용전략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고, 한국문화수용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또한 유의한 이중 매개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민족정체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때, 한국문화수용전략의 매개효과도 유의했다. 하지만 고국문화유지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중국유학생뿐만 아니라 이중문화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문화충돌을 경험하기 마련이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유학생은 자신이 중국인인지 학생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생활한다. 하지만 중국유학생의 확고한 민족정체성은 고국문화유지와 더불어 한국문화를 더 수용하게 하여 문화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유학생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는 문화접변에서 겪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낮추는 지름길이고, 유학생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중국유학생이 한국주류사회에 동화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거나 문화통합을 보이거나 간에, 주류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는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유학생의 유학생생활은 학업성취 외에도 많은 의미를 지닌다. 중국유학생 개인적으로는 한국문화를 익히고, 수용하면서 한국을 알고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유학생 한명 한명이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목이고, 향후 국제교류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지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유학에 자신의 희망을 품고 한국에 건너온 중국유학생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학업포기와 더불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닫지 않도록, 학교상담자는 그들의 적응과정을 도와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과 중국의 향후 국제교류와 외교를 책임질 미래의 민간외교관이 심신이 건강하게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유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다.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문화 수용전략은 중국유학생의 유학생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중문화수용에 관한 연구(김혜순, 이시철, 2014; 이재완, 2014; 이중복, 이성순, 김재열, 김현희, 정명희, 2012)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문화역량측면에서 두 문화를 모두 수용하고 통합해가는 과정은 중요하다. 이는 비단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유학생에게도 적용된다. 언어적 미숙함 때문이건 혹은 중국유학생과의 강한 유대감 때문이건 간에,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문화를 익히기보다는 사대주의에 빠져서 중국문화의 우월성만 강조하거나 중국유학생끼리의 연대만 강조한다면, 중국유학생은 유학생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한국문화를 익힐 기회마저 줄 것이다. 먼저 중국유학생은 민족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 속에서 한국문화를 수용하며 한국대학생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감수성과 문화역량이야말로, Berry가 강조한 문화통합의 근간이다.

둘째, 최근 민족정체성 발달과 문화적응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영향(박소라, 2008)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한류열풍으로 인해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중국유학생이 어쩔 수 없이 유학하게 되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동일문화권에 속하는 나라 혹은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국가가 아닌, 중국유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선호하는 유학국이 되었다. 따라서 많은 중국유학생이 한국을 선호하고,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유학한다.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중국유학생일수록 유학기간동안 학교생활을 잘 하는 것(신혜정, 2007)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에 대해 거부감 없고, 한국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중국유학생은 한국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다면,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서라도 그들은 한국을 먼저 접해야만 할 것이다. 대중매체는 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안내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세는 중국유학생의 사전준비이고,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셋째, 한국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최근 많은 국내연구자들(김유나, 2012; 김정현, 송진숙, 문희강, 이명희, 2013; 남순현, 2012; 남순현, 김슬기, 이은혜, 윤상연, 2010; 홍서연, 손병덕, 손주희, 2018;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그 변화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한국인은 동양인보다 서구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한국대학생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문화적 민감성을 증진시켜 한국인이 열린 자세로 중국 유학생을 수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앞으로 문화가 전혀 다른 이문화의 학생에 대한 이해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학생에 대한 입국 전 사전 교육의 필요성이다.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해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나 수용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유학생의 한국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가 유학생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학교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입국 전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정책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교상당장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자는 다양한 다문화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학생이 한국 문화와 유학생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의 어려움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중국유학생을 전수조사하거나 비례확률표본표집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선 표집의 대표성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통해 중국 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선행연구자들이 강조한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중국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사용 외 다양한 통제 변인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국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민족정체

성과 문화적응전략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중국유학생의 학교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유학생의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유학생이 한국유학생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그들의 민족정체성, 문화적응전략 및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중국유학생에 대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겪는 문화적응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과정을 밝힌 연구는 전무하기 없기 때문에,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다문화사회 속에서 다문화상담이 중요하게 인식되고(남지은, 남지혜, 김동일, 2020), 국내 많은 유학생의 유입으로 인하여 대학 내 다문화상담의 중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가 지니는 함의는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다문화상담을 위한 좋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설동 (2012). 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대처.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2020). 보도자료: 2020년 교육기본통계 결과발표. 교육부.
- 교육통계서비스 (2020).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https://kess.kedi.re.kr/frontPop/publView?publItemId=80235&survSeq=2019&publSeq=3>.

- 권미경, 이순형 (2010). 조기 해외 유학 아동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적응: 문화적응이론에 근거하여. *인간발달연구*, 17(1), 145-171.
- 김경은 윤노아 (2012). 청소년의 국민정체성, 통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다문화시대 사회와 통일교육에의 함의. *사회과교육*, 51(1), 123-140.
- 김삼화 (2005). 다문화적 맥락에서의 대인관계 교육 프로그램: 재한 중국유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임 (2012). 이주노동자공동체 형성에서 민족 정체성과 종교 정체성의 경합: 미얀마, 방글라데시,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김성혁, 최혜정, 김수진 (2012).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경험. *다문화건강학회지*, 2(1), 1-15.
- 김윤나 (2012). 다문화감수성, 인권인식, 임파워먼트의 비교분석을 통한 인권교육 실천 방안: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일반인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 5(3), 15-32.
- 김재우 (2005). 재한 중국유학생이 느끼는 차별과 대처방식이 문화적응유형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현, 송진숙, 문희강, 이명희 (2013). 대전시 중고등학생의 다문화사회 인식과 다문화교육 경험이 문화적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 필요성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1), 107-118.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순, 이시철 (2014). 국가별 관심 편중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측정: 대구 달서구 사례의 실증 분석. *지방행정연구*, 28(1), 89-114.
- 남순현 (2010). 중국유학생의 학년별 학교생활 적응유형분석 및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정체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4(4), 977-998.
- 남순현 (2012). 한국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949-975.
- 남순현, 김슬기, 이은혜, 윤상연 (2010). 한국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94-395.
- 남지은, 남지혜, 김동일 (2020). Multicultural competence for counseli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A focus on university counseling centers.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1043-1068.
- 두환, 판아샤, 자오쉬, 유정순, 장경자 (2008). 한국거주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체중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춘추계학술대회지*, 140-141.
- 리통 (2009).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적응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샤론 (2009).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라 (2008). 이민 2세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정체성과 문화적응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2(6), 237-257.
- 박은진 (2007).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문화적응과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 건강.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원영, 리난 (2008).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

- 화적응유형에 따른 유학 초기 심리적 적응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2), 159-173.
-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은미 (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양계민 (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387-421.
- 양계민, 이우영 (2016).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2(1), 71-105.
-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해외거주 후 국내대학에 진학한 귀국 대학생의 문화적응양상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2), 125-146.
- 유지현, 송소원, 류민영 (2008). 중국인 유학생의 적응에 관한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22, 57-96.
- 육담성 (2005). 文化適應類型別在韓中國留學生留學生活適應性探析. 東亞文明交流与互鑒, 第九屆中日韓研究生論壇, 263-282.
- 이규미 (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 이수범, 김동우 (2009).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1, 47-79.
- 이순비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민 (2012). 귀국성인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모 (2008).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실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완 (2014). 지역사회복지 교육의 정체성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8, 165-200.
- 이중복, 이성순, 김재열, 김현희, 정명희 (2012).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경기: 양서원.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정호영 (2001). 세계화-정보화,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문화 및 문화 콘텐츠 정책. 문화정책논총, 13, 27-52.
- 조민경, 김렬 (2010).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이주민의 이중문화 정체성과 사회문화적응의 관계. 대한정치학회보, 18(2), 263-289.
- 주동범, 김향황 (2013). 국내 외국인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교육연구, 23(1), 123-145.
- 하정희 (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73-496.
- 한유경 (2009). 재한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몽골 유학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춘영, 김광일 (1997).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양상에 대한 연구-I: Q방법을 이용한 조사 연구. 정신건강연구, 16, 166-180.
- 홍서연, 손병덕, 손주희 (2018). 국민의 다문화

- 인식이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도권거주 국민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2(3), 300-324.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연구총 07-19-02.
- Abuckley,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Adler P. S. (1975). The transitional experience: An alternative view of cultural shock.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5, 13-23.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Beiser, M. M., Barwick, C., Berry, J. W., da Costa, G., Fantino, A., Ganesan, S., Lee, C., Milne, W., Naidoo, J., Prince, R., Tousignant, M., & Vela, E. (1988). *Mental health issues affecting immigrants and refugees*. Ottawa, ON: Health and Welfare Canada.
- Bernal, M. E., & Knight, G. P. (1993). *Ethnic identity: Formation and transmission among Hispanics and other Minorities*. Albany, NY: SUNY Press.
-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 moving between cultures. In R. W. Brislin (Ed.), *Applied cross cultural psychology* (pp. 232-253). London: Sage.
- Berry, J. W. (1992). Immigration and adaptation in a new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30, 69-85.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M. Chun, P. Balls Organista, & G. Marín (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p. 17-37).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472-004>.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3), 697-712.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 <https://doi.org/10.1177/019791838702100303>.
- Berry, J. W., & Sam, D. (1996).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M. H. Segall and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 Social behavior and applications (2nd Edn.), Boston: Allyn and Bacon.
- Chaikovski, S. (2006). 한국 속의 서구인들이 보이는 한국문화에의 이해와 적응.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hurch, A. T. (1982). Sojourner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91(3), 540-572. <https://doi.org/10.1037/0033-2909.91>.
- Costigan, C. L., Koryzma, C. M., Hua, J. M., & Chance, L. J. (2010). Ethnic identity, achievement,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 Examining risk and resilience among youth from immigrant Chinese families in Canada.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6(2), 264-273.
- Crockett, L. J., Iturbide, M. I., Torres Stone, R. A., McGinley, M., Raffaelli, M., & Carlo, G. (2007).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Relations to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3(4), 347-355.
- DeCarlo, L. T. (1997) On the meaning and use of kurtosis. *Psychological Method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 292-307. <http://dx.doi.org/10.1037/1082-989X.2.3.292>.
- Dong, Q., Gundlach, D., & Phillips, J. (2006). The impact of bicultural identity on immigrant socialization through television viewing in the United State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15, 63-74.
- Garza-Guerrero, A. C. (1974). Culture shock: Its mourning and the vicissitudes of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22, 408-429.
- Gudykunst, W. (1994). *Bridging differences: Effective intergroup communication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Haritatos, J., & Benet-Martínez, V. (2002). Bicultural identities: The interface of cultural, personality, and socio-cognitive process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6), 598-606. [https://doi.org/10.1016/S0092-6566\(02\)00510-X](https://doi.org/10.1016/S0092-6566(02)00510-X).
- Hovey, J. D., & Kin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9), 1183-1192. <https://doi.org/10.1097/00004583-199609000-00016>.
- Kim, U. (1988). *Acculturation of Korean immigrants to Canad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Queen's University, Canada.
- Kim, Y. Y. (1995). Cross-cultural adaption: An integrative theory. In R. L. Wiseman (E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theory* (pp. 170-193). Thousand Oaks, CA: Sage.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Guilford Press.
- Krupinski, J., Stoller, A., & Wallace, L. (1973). Psychiatric disorders in East European refugees now in Australia. *Social Science and Medicine*, 7, 31-49.
- Mallinckrodt, B., & Leong, F. T. (1992).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stres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1), 71-78.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 Marcia, J. E. (1983). Some directions for the investigation of ego development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15-223.
- Oh, Y., Koeske, G., & Sales, E. (2002).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 stat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4), 511-516.
- Ong, A. D., Phinney, J. S., & Dennis, J. (2006). Competence under challenge: Exploring the protective influence of parental support and ethnic identity in Latino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ce*, 29(6), 961-979.
- Park, S. (2007). *The measurement of sport fan curio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uisville, Louisville.
- Phinney, J. S.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 499-514.
- Phinney, J. S. (1992).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A new scale for use with diverse grou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 156-176.
- Phinney, J. S., Cantu, C. L., & Kurtz, D. A. (1997). Ethnic and American identity as predictors of self-esteem among African American, Latino, and Whit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 165-185.
- Phinney, J. S., & Chavira, V. (1992). Ethnic identity and self-esteem: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15, 271-281.
- Phinney, J. S., & Devich-Navarro, M. (1997). Variations in bicultural identification among Afric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 165-184.
- Phinney, J. S., Horenezyk, G., P. Liebkind, K., & Vedder (2001). Ethnic identity, immigration, and well-being: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57, 493-510.
- Phinney, J. S., & Ong, A. D. (2007).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ethnic identity: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3), 271-281. <https://doi.org/10.1037/0022-0167.54.3.271>.
- Phinney, J. S., & Onwughalu, M. (1996). Racial identity and perception of American ideals among African American and African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 127-140
- Poyrazli, S., Kavanaugh, P. R., Baker, A., & Al-Timini, N. (2004). Social support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acculturative stress i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7(1), 73-83.
- Rindskopf, D. (1984). Structural equation models: Empirical identification, heywood cases, and related problem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3(1), 109-119.
- Roberts, R. E., Phinney, J. S., & Masse, L. C., Chen, Y. R., Roberts, C. R., & Romero, A. (1999). The structure of ethnic identity of young adolescents from diverse ethnocultural group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 301-322.
- Roche, C., & Kuperminc, G. P. (2012). Acculturative stress and school belonging among Latino youth.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4(1), 61-76.
- Rogler, L. H. (1994). International migrations: A framework for directing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49(8), 701-708. <https://doi.org/10.1037/0003-066X.49.8.701>.
- Rumbaut, R. G. (1994). The crucible within: Ethnic identity, self-esteem, and segmented assimilation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8, 748-794.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https://doi.org/10.1037/0022-0167.45.1.18>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mith, A. D. (1991). *National identity*. Reno: University of Nevada Press.
- Walker, R. L., Wingate, L. R., Obasi, E. M., & Joiner, T. E. (2008).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nd ethnic identity as moderators for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1), 75-82.
- Wei, M., Heppner, P. P., Mallen, M. J., Ku, T. Y., Liao, K. Y. H., & Wu, T. F. (2007). Acculturative stress, perfectionism, years in the United States,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358-394.
- Weissman, M. M., & Paykel, E. S. (1974). *The depressed woman: A study of social relation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IL.
- Zhang, H. (2005). 서울지역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 고 접 수 일 : 2020. 12. 02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1. 12
계 재 결 정 일 : 2021. 03. 12

The effects of Ethnic Identity, Accultur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on Chinese Students'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South Korea

Nam, Soonhyeon

Dept. of Welfare Administration, Kyungbuk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acculturation strategies and acculturative stress when ethnic identity influences Chinese students'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South Korea. Participants were 404 Chinese students identified through purposive sampling from February 2019 to May 2019. The results indicated that ethnic identity and acculturation strategies positively affected Chinese students'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onl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cculturative stress. The use of strategies for facilitating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and dealing with acculturative stress positively affected Chinese students'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When ethnic identity and acculturation affected Chinese students' adaptation, strategies for facilitating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and acculturative stress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This study suggests that ethnic identity and acculturation strategies are important for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mong Chinese students. These findings can be used to inform multicultural counseling practices.

Key words : Chinese student in South Korea, ethnic identity, acculturation, acculturative stress,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multicultural counselling